

성격이 미소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보철학전공 김현성

연구 목적

성공적인 치과치료를 위해서는 기능회복은 물론 심미성의 회복을 통한 환자의 심리적인 면까지 만족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 미소는 개인의 개성과 인격까지도 나타내며 그 사람의 뚜렷한 특징도 구별시켜 주기도 하고 신체적 조건이나 변화와 함께 정신적인 상태에 따라 예민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미소의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성격요인들중 어떠한 요인이 미소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발육상태가 정상이고 전신, 유전적 질환이 없으며, 안모가 양호하고 치아의 결손이 없으며, 교정 및 보철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고 교합상태가 양호한 원광대학교 치과대학생 60명(남자: 30명, 여자: 3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1) 성격을 알아볼 수 있는 설문조사

165문항으로 구성된 성격요인검사(Personality Factor Questionnaire, 한국심리학회 연구소)를 피검자 스스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2) 미소시의 안모 정면 사진 촬영

표준화된 안모 정면 사진을 얻기 위하여 두부고정장치와 삼각대에 고정된 35mm 카메라(F801, Nikon, Japan)를 이용하여 피검자로 하여금 자연스러운 미소를 짓게 하여 미소시의 안모 정면 사진을 촬영하였다.

3) 미소의 미적수준 평가

10인의 치과 의사가 각 연구대상자의 미소에 대한 미적평가를 각각 매우 우수: 5점, 우수: 4점, 양호: 3점, 보통: 2점, 불량: 1점의 점수를 부여하여 1주 간격으로 2회 반복 평가하여 개인별 총점(100점 만점)을 미소평점으로 하였다.

4) 미소의 미적수준과 성격요인검사의 결과 비교

SAS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격요인검사를 통하여 얻어진 성격요인별 점수와 미소평점간의 상관관계를 Pearson 상관계수로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 1) 성격요인중 온정성, 강한 자아강도, 정열성, 대담성, 편안감, 집단의존성, 이완감, 외향성, 약한 불안등의 요인이 증가할수록 미소의 미적수준이 높았다.
- 2) 여자의 경우는 성격이 미소의 미적수준에 영향을 많이 끼쳤으나, 남자의 경우는 성격이 미소의 미적수준에 영향을 적게 끼치는 경향을 보였다.